



2022 전북

# 아·태 마스터스의 '상징' 찾아서

대회 조직위, 9월 24일까지 상징물 공모 진행

엠블럼 · 마스크트 · 포스터 · 슬로건 등 4개 부문

70여개국 1만3000여명이 출전하는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상징물 공모전이 진행된다.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는 오는 9월 24일까지 대회 상징물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성공개최를 위한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응모분야는 ▲엠블럼 ▲마스크트 ▲포스터 ▲슬로건 등 4개 부문으로 별도의 자격 제한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주제는 대회 개최를 통해 지구촌이 화합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분

위기를 묘사하되, 생활스포츠와 관광이 결합된 대회 이미지, 전라북도의 전통과 역사·문화·비전,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가 추구하는 정신(연령, 성별, 인종, 종교, 지위에 상관없이 우정과 이해 증진) 등을 상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개인이 순수 창작한 작품에 한해 각 부문별로 1인당 2점씩 응모 가능하며, 이미 공개됐던 작품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한 작품으로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는 '전북소통대로' 누리집(<http://policy.jb.go.kr>) '공모제인' 코너를 통해 공모신청서, 작품설명서, 서약서, 디자인 파일을 제출하면 되고, 디자인작품 원본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9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우편접수 시에는 응모 마감일까지 우

체국 소인이 찍힌 작품에 한해 유효하다. 제출된 작품은 유관기관이나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최종 16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작품의 경우 엠블럼, 마스크트는 각 300만 원, 포스터는 200만 원, 슬로건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시상금도 듬뿍 지급된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성원, 지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모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 생활체육 종합대회로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동안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26개 종목에서 70개국 1만3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뉴시스

## '전주성에 다시 함성이'

전북현대, 내달 1일 포항전 티켓 예매 오픈

전주월드컵경기장에 관들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전북현대가 오는 8월1일 을 시즌 처음으로 K리그 경기를 팬들과 함께 한다.

지난 2월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을 홈에서 치른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됐던 K리그1이 부분 유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전북은 이번 2020 K리그 첫 유관중 경기가 되는 포항전 티켓 예매를 오픈한다.

티켓 판매 운영은 방역당국과 연맹 지침에 따라 전주월드컵경기장 총 좌석의 10%인 4205석을 지정석으로 온라인 예매만 실시한다.

전북은 29일 오후 3시 3000석을 시준권 구매자에게 우선예매를 오픈하고 하루 뒤인 30일(목) 오후 3시부터 일반 예매를 진행한다고 28

일 밝혔다.

또한 한국 프로축구 연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리두기 착석(전후좌우 한 칸씩 띄어 앉기)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객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에서 현장 판매는 실시하지 않으며 경기 당일 매표소에서는 예매권 수령만 가능하다.

경기장 입장 시 37.5도 이상 발열 증상이 나타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입장이 불가하다.

또한 입장 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운영하며 관중 내 음식물을 포함한 주류 등은 취식 및 반입이 금지돼 물과 음료만 가능하다.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는 축구 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주월드컵경기장 전경.

## 전북·수원, 10~11월 AFC 챔피언스리그 재개

말레이시아에서 중립 경기

프로축구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이 말레이시아에서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잔여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AFC는 27일(한국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된 챔피언스리그의 재개 계획을 알렸다.

수원과 전북이 속한 G조, H조의 경우, 10~11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중립 경기를 치르기로 했다.

AFC는 "챔피언스리그 G조, H조 경기를 10월 17일부터 11월1일까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축구협회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FC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챔피언스리그 재개를 계획했고,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권역별로 중립경기를 치를 방침을 세웠다.

수원은 G조에서 광저우(중국), 조호르(말레이시아), 비셀 고베(일본)와 경쟁하고, H조의 전북은 상하이 상강(중국), 요코하마(일본), 시즈니(호주)를 상대한다. 수원은 2패로 4위, 전북은 1무1패로 2위에 자리했다.

FC서울, 울산 현대가 속한 E조와 F조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한 일정대로 열릴 경우, K리그 경기 일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K리그 파이널 라운드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다녀온 선수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2주 자가격리도 해야 한다. /뉴시스

## KBO, 언택트 올스타 이벤트 일환 베스트12 선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취소됐지만, 베스트 12 선정 투표는 진행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언택트 올스타 이벤트'의 일환으로 올스타 베스트12를 선정한다

고 28일 밝혔다.

KBO는 올스타전 개최 무산으로 인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올스타 베스트 12 선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KBO는 타이틀스폰서인 신한은행과 손잡고

'2020 신한은행 올스타 베스트 12' 선정을 위한 팬 투표를 실시한다.

구단 별 후보 명단은 8월3일 발표되며 팬 투표는 다음달 10일부터 9월4일까지 26일 동안 KBO 홈페이지와 KBO 어플리케이션, 신한은행 SOL 어플리케이션 등 3개의 플랫폼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뉴시스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